

Open Mind, Open Water

글. 장덕언 KBS 라디오기술국 팀장

첫 경험

첫 경험은 언제나 짜릿하고 강렬하다. 특히 그것이 아무나 할 수 없는 경험이라면 기억은 환상이 되어 더 오래도록 뇌리에 남는다.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가 낯설고 두렵기도 하지만 나는 호기심이 많은 편이고 궁금한 것은 직접 해 보자는 주의자다. 좋고 싫고는 해 보고 나서 판가름이 난다.

내 생애 첫 번째 다이빙은 코타키나발루에서의 체험 다이빙이었다. 체험 다이빙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간단한 이론교육을 받고 다이브 마스터와 동행하여 얕은 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의 맛만 보는 점투어 여행 상품이었다. 말이 동행이지 현지인 다이브 마스터에게 거의 끌려다닌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체험 다이빙도 스쿠버 다이빙이다. 입수하자마자 호흡기를 통해 입으로 하는 호흡이 엇박자를 타

면서 바닷물을 한 바가지나 들이켰다. 켜다. 우리가 먹는 짬 음식의 짬맛과는 완전히 다른, 정체되지 않은 비릿한 짬맛이었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다.

호흡 말고 또 하나의 난관에 봉착했다. 수심이 조금씩 깊어지자 ‘빠’ 소리가 나면서 귀가 먹먹해졌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해수면보다 기압이 높아지는데 몸이 압력의 영향을 받아 생기는 현상이라고 했다. 이때 필요한 기술이 이퀄라이징(압력 평형)이다. 이론교육 때 강사가 수없이 강조하고 사전 실습까지 했지만, 바다는 실전이었고 몸은 생각처럼 따라주지 않았다. 이명이 있는 것 같이 ‘빠’ 소리가 귓전에서 떠나질 않았다. 스쿠버 다이빙에서 중요한 호흡, 압력 평형 그리고 부력 조절 중 어느 것 하나도 쉽지가 않아 체험은 그야말로 고난이 되었다.

세부 힐루동안섬 편다이빙



세부 막탄섬 편다이빙

그런데도 바다의 속살은 숨 막히게 아름다웠다. 물 밖에서 보는 바다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울긋불긋한 산호들이 예쁜 정원을 꾸며 놓은 듯 군락을 이루고 형형색색 수많은 열대어가 실새 없이 군무를 추며 장관을 연출했다. BBC 8K 웰메이드 자연 다큐보다 더 실감 나고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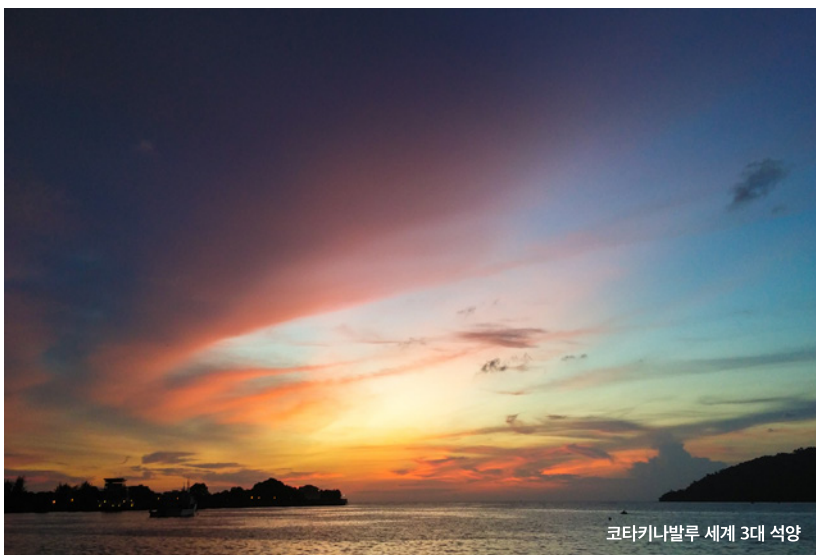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의 코타키나발루는 세계 3대 선셋 포인트이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아름다운 휴양지이다. 노을이 물드는 저녁, 워터프론트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도 힐링되는 곳이다. 여기

서 체험 다이빙을 한 것은 여행 중 '신의 한 수'였다. 그렇게 했던 첫 경험이 내 생애 최고의 취미로 자리매김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스쿠버 다이빙 첫 경험은 나에게 환상 그 이상이었다.

Open Mind, Open Water

첫 경험은 황홀했고 다음 다이빙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한도가 초과하였다.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영화 주인공 니모와 조우한 이후로 늘 바닷속 세상을 동경해 왔다. 다만 다음 다이빙은 더 이상 다이브 마스터에게 뒷덜미를 잡힌 채 질질 끌려다니는 굴욕스러운 장면은 아니길 바랐다. 사실 스쿠버 다이빙은 위험한 익스트림 스포츠이다. 자칫 잘못하면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단순히 바닷물을 조금 들이키는데 그치지 않고 호흡에 문제가 생기면 순식간에 멘탈이 붕괴되고 패닉에 빠지게 된다. 언제까지 체험 다이빙만 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 나의 안전을 다이브 마스터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을 정식으로 하려면 자격이 필요한 것이다.

‘오픈워터 다이버’는 레저로 즐길 수 있는 스쿠버 다이빙의 입문 자격증이다. 스쿠버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물론 입수에서 출수까지 다이빙의 모든 과정을 이론과 더불어 실습을 통해 배우게 된다. 최대 수심 18m까지 다이빙을 할 수 있고 바닷속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체득한다. 물론 자격증을 땀다고 바로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후에 자격증 업그레이드



코타키나발루 세계 3대 석양



코타키나발루 니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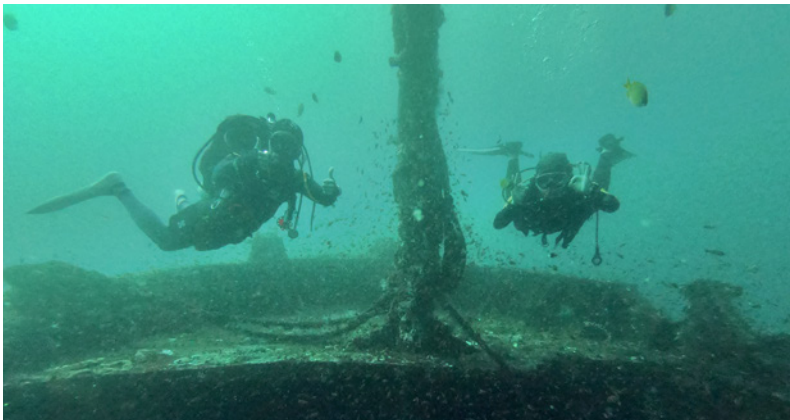
보홀 발리카삭 니모



오픈워터 교육, 자이언트 스트라이드 입수



오픈워터 교육 해양 실습



베르데 난파선 딥다이빙(수심 40m)



스쿠버 SCUBA 다이빙이란?



SCUBA의 약어는
Self Contained Underwater Breathing Apparatus.

즉, 스쿠버 다이빙이란 도움 없이 혼자(Self Contained) 수중(Underwater)에서 숨을 쉴 수 있게(Breathing) 해 주는 장비(Apparatus)를 착용하고 다이빙(Diving)하는 것이다.

- 출처 : 나무위키

나 편다이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스쿠버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오픈워터 다이버(Open Water Diver). 개인적으로 라이선스 이름이 마음에 쏙 든다. 마치 바다가 어서 오라 손짓하고 당장이라도 바다에 뛰어들고 싶은 느낌마저 들게 하는 이름이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바다지만, 전 세계 사람 중 1%만이 바닷속 세상을 경험한다. 마음을 여는 순간, 1%만의 특별한 세상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매력적이다. Open mind, Open Water!!

다이빙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은 바다로의 탐험을 하고 싶어진다. 사실 18m 수심으로는 부족하다. 난파선 탐험을 하고 멋진 해저 지형과 보기 힘든 수중 생물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오픈워터 어드밴스드(Advanced) 다이버’는 최대 수심 30m까지 다이빙을 할 수 있고, ‘딥 다이빙’은 최대 40m까지 다이빙이 가능한 자격이다. 나는 오픈워터 자격증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서둘러 어드밴스드 다이버 자격증을 땀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바다지만,
전 세계 사람 중 1%만이
바닷속 세상을 경험한다.
마음을 여는 순간,
1%만의 특별한 세상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매력적이다.

다이빙을 좋아하는 진짜 이유

다이빙은 무엇보다 재미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 가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재미있다. TV 프로그램이나 자연도감에서나 보던 니모(흰동가리)와 같은 귀여운 열대어도 만나고 바다거북과 함께 수영할 수 있는 경험은 그 자체로 신기하고 흥미롭다.

그러나 내가 다이빙을 좋아하는 진짜 이유는 다름 아닌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입수 전에는 어떤 다이빙이 될지, 또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날지 설레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한다. 하지만, 바닷속으로 풍덩 뛰어들고 나면 곧바로 나의 생명줄인 호흡기(레귤레이터)에 의지해 호흡에만 집중하게 된다. 일상에서의 걱정과 고민은 생각하고 싶어도 쉽게 이어지지 않는다. 생존 본능만이 작동할 뿐이다. 부력과 압력을 거슬러 목표 깊이에 도달한 후에는 평형을 유지하며 수영을 시작한다. 마치 우주를 둥둥 떠다니

는 기분과도 같으리라. 호흡은 안정을 찾고 흥분은 가라앉는다. 오로지 들숨과 날숨만이 교차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비로소 내가 살던 세상과는 단절되고 진짜 바다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나에게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고요한 그 시간이 나는 정말로 좋다. 그래서 자주 그 시간을 갖고 싶은 것이다.

다이빙을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 버디(Buddy)와 함께하는 것이다. 다이빙 중에는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 공기통의 공기가 소진될 수도 있고 스쿠버 장비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 더 이상 혼자 다이빙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다이빙은 꼭 짝을 지어서 해야 한다. 다이빙하는 동안 서로의 상태를 살피며 지근거리에서 동행한다. 스쿠버 장비에 예비 호흡기가 있는 이유는 내 호흡기에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하기도 하지만 이상시에 버디와 공기를 나누어 쓰기 위함이기도 하다. 우리말 ‘벗’과 ‘너’도 많이 닮은 ‘버디’.



보홀 발리카삭 편다이빙, 잭피쉬와 함께



난루수안 편다이빙 후 휴식시간



난루수안 편다이빙 버디와 함께



보홀의 혼한 노을

비록 물속에서 자기 앞가림하기 바빠 서로 도움 줄 처지는 못 되지만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때로는 바다에서 만난 버디가 사회에서 만난 오랜 친구보다 더 순수하고 믿음직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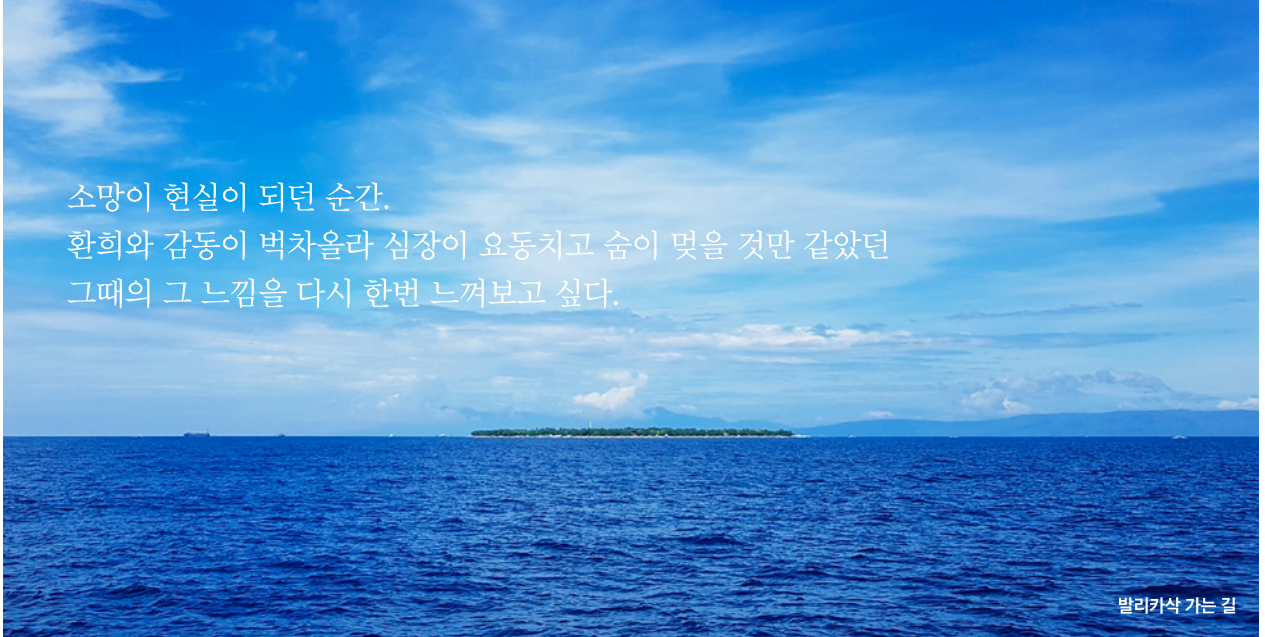
천국의 섬, 보홀

세부나 보라카이만큼 유명한 관광지지는 아니지만 필리핀 보홀은 ‘아시아의 홍해’라고 불릴 정도로 물이 맑고 아름다운 섬이다. 특히 보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이빙 포인트가 많아서 дай버들 사이에는 더욱 유명하다. “보홀은 몰라도 보홀 바다는 알고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보홀에서 가장 유명한 알로나비치 입구에 ‘One Step Before Paradise’(한 걸음만 더 가면 천국)라는 간판이 있는데 섬을 가장 설명해주는 말인 것 같다. 실제로 보홀을 여행하면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님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방카(필리핀의 낚싯배)를 타고 보홀 남쪽으로 40분 정도 곧장 달리면 세계 10대 다이빙 포인트가 있는 다이버들의 천국, 말리카삭이라는 섬이 있다. 보홀이 다이버들에게 사랑



소망이 현실이 되던 순간.
환희와 감동이 벅차올라 심장이 요동치고 숨이 멎을 것만 같았던
그때의 그 느낌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



발리카삭 가는 길



보홀 발리카삭 편다이빙, 바다거북



보홀 발리카삭 편다이빙, 프로그램피쉬



보홀 발리카삭 편다이빙, 잭피쉬 스쿨링

받는 이유가 바로 발리카삭 때문이다. 개북이라고 할 정도로 거북이가 많고 고래상어가 가끔 출몰하기도 한다. 운이 좋으면 잭피쉬(전갱이)나 바라쿠다 떼의 스쿨링 장면도 볼 수 있다. 수백 수천 마리의 물고기 무리가 원을 그리며 뱅글 뱅글 도는 스쿨링은 다이빙 경험이 많은 다이버들도 쉽게 만날 수 없는 장관이다. 다이빙하러 세계 여러 곳을 다녔지만 어찌면 다시 보기 힘든 명장면을 마주한 곳이 바로 필리핀 보홀이었다. 그래서 보홀은 나에게 특별한 곳이고 천국과도 같은 곳이다.

백 살이 넘는 거북이와 함께 유영하던 장면과 잭피쉬의 황홀한 스쿨링 장면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필리핀 정부에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예약제로 하루 입도 인원을 제한하고 날씨와 물 때도 맞아야 하기 때문에 발리카삭에서의 다이빙 기억은 더욱 특별하다.

소망이 현실이 되던 순간. 환희와 감동이 벅차올라 심장이 요동치고 숨이 멎을 것만 같았던 그때의 그 느낌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 코로나도 종식되고 그런 날도 다시 오겠지? 🐬